

조기 정신증 돌봄 모형 개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이론적 접근

성경미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 건강과학연구원

A Theoretical Structural Model for Caring Persons with Early Psychosis: A systematic review and qualitative meta-analysis

Kyung Mi Sung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조기 정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증 진행을 늦추고 정신기능의 불균형을 줄여 사회적 기능이 최적으로 호전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돌봄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 정신증 환자의 돌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1) 연구주제 및 자료 분석방법 결정, 2) 문헌탐색 및 분석대상 선택, 3) 자료 추출, 4) 예비모형 구축 및 타당도 검증의 단계를 적용하였다. 2000년대 이후 '조기 정신증 돌봄'에 대해 실시된 선행문헌중 본 연구대상에 선정된 19개 문헌에 대해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차 분석틀에서 개별 연구에 나타난 조기 정신증 돌봄 요인 51개를 추출하고 이를 21개의 중분류로 나누었으며 이차 분석틀에서 요인의 속성이 유사한 것끼리 모아 8개의 범주명을 제시하였다. 또한 돌봄 요인에 대한 범주명을 간호사와 환자가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중범위 이론인 Peplau의 대인관계이론을 기틀로 하여 예비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접근을 통해 조기 정신증 환자의 치료받지 않는 기간을 줄이고 개인의 발달기와 환경에 적합한 간호중재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돌봄 모형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construct a theoretical model for managing persons with early psychosis. We systematically searched SCOPUS, PubMed, RISS, Web of Knowledge, and KoreaMed for related factors to manage persons with early psychosis. Significant terms or phrases for a preliminary structural model were obtained from 19 studies since 2000 regarding the management of persons with early psychosis. Moreover, the content validity for the model was evaluated by 22 professionals. The study results revealed 51 factors for managing persons with early psychosis extracted by meta-analysis, and all factors were divided into 21 medium classification and 8 categories. A theoretical model was constructed with 8 categories, by using the middle range theory of Pepla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theoretical model for the management of persons with early psychosis provides a sound theoretical basis for future study.

Keywords : Theory, Structural model, Caring, Psychosis, Meta-analysi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높은 자살률과 음주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신장애 발생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1]. 특히 청소년기부터 젊은 성인기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도 불안정한 감정과 행동이 나타나며 정신심리적 으로 격동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생의 주기에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yeongsang National Univ Fund for Professors on Sabbatical Leave 2014.

*Corresponding Author: Kyung Mi Sung(Gyeongsang National Univ.)

Tel: +82-55-772-8246 email:sung@gnu.ac.kr

Received September 23, 2016

Revised (1st October 11, 2016, 2nd December 5,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7

취약한 발달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정신병 발병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증 고위험군 발견과 조기중재는 관련 학문 분야의 주요한 관심 영역이 되었다. 초기 정신증(Early Psychosis)은 정신증의 초기 즉 발병 전 전구기 기간과 첫 발병 정신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치료하지 않으며 조현병과 같은 심각한 정신병으로 발전된다[2]. 이 시기는 대부분 전구기와 병전 기능장애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에 걸쳐 발병하면서 조현병으로 진행되면 급성이나 아급성의 증상을 시작으로 수년간의 이행기를 거치게 된다[3]. 정신병 전구기에 보이는 문제 양상은 주로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위생상태 혹은 자기관리가 부실해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 등이다[2,3]. 외국문헌에는 이러한 대상자들의 정신증 발병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초기 정신증 환자들을 위한 연구는 부진하며 특히 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열악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높은 편으로 한번 진단을 받으면 평생 정신질환자로 살아야 한다는 낙인감 때문에 치료받지 않고 숨기거나 가족에 의해 방치되고 있으며 심지어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어도 이를 지속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치료 효과가 유지되지 않아 회복이 어려운 만성 조현병으로 진행되고 있다[4].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치료받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회복이 어려우며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정신병에 대한 편견으로 증상을 숨기거나 방치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접근으로 정신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4]. 따라서 조기에 정신증 진행을 늦추고 정신기능의 불구를 줄여 사회적 기능이 최적으로 호전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들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성장과정에 필요한 발달과제를 성취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정신증이 발생하는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체계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하여 이 시기에 필요한 성장발달 과제를 성취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능력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조현병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성장발달을 가능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일차정신

보건 인력을 활용해 초기 정신증 환자에게 필요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간호학자인 Peplau는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를 오리엔테이션, 확인, 개발, 그리고 종결의 네 단계로 설명하면서 간호사가 이방인, 자원인, 교육자, 상담자, 지도자, 대리인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5-7]. 따라서 Peplau의 대인관계 모형은 초기 정신증 환자와 정신보건간호사의 치료적 관계를 폭넓게 설명할 수 있어서 초기 정신증 환자가 정신병으로 이환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예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는 정신증이 발생하더라도 불구를 최소화함으로써 기능회전 정도를 높이고,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들이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생의 발달과제를 성취해 가도록 돕는데 적합하리라 본다. 이는 초기 정신증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조기에 개별 중재를 받음으로써 치료순응도가 높아지고 회복이 증진될 수 있음을 근거로 한 것으로, Peplau의 대인관계이론을 적용해 돌봄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정신보건간호사가 초기 정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유도하고 가족을 포함하여 정신건강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접근을 통해 정신병에 대한 편견으로 증상을 숨기거나 방치하는 경향을 줄이고 이미 발견된 초기 정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증 진행을 늦추고 정신기능의 불구를 줄여 사회적 기능이 최적으로 호전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돌봄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추후 간호중재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기틀이 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정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돕고 포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이론적 돌봄 모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선행문헌을 토대로 초기 정신증 환자와 관련된 돌봄 요인을 추출한다.
- 2) 돌봄 관련 변인을 이용한 예비 모형을 구축하고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초기 정신증 돌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조기 정신증 환자의 치료 및 증재와 관련된 선행 문헌의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조기 정신증 돌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생성하는 서술연구이다.

2.2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에서는 조기 정신증 환자의 돌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1) 연구주제 및 자료 분석방법 결정, 2) 문헌탐색 및 분석대상 선택, 3) 자료 추출, 4) 예비모형 구축 및 타당도 검증의 단계를 적용하였다.

1) 연구주제 및 자료 분석방법 결정

2000년대 이후 ‘조기 정신증 돌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지금까지 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었으며 돌봄 요인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 정신증 돌봄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8-27]을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하였다. 질적 메타분석은 특정 연구 분야의 일반화된 지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별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는 방법중 하나로 통계적 메타분석과 달리 양적자료보다는 개별연구에 나타난 주요 개념을 도출하여 이를 고차원적인 이론적 구조와 연결하여 상위개념을 생성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이론적 생성을 도모하는 종합 분석으로 Noblit와 Hare[28]는 이를 해석적 메타분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선행문헌에 제시된 돌봄 요인들을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추출하고 이를 Peplau의 대인관계 이론과 연결하여 조기 정신증 돌봄 모형을 제시하였다.

2) 문헌탐색 및 분석대상 선택

본 연구자는 조기 정신증 돌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의 조기 정신증 환자의 돌봄 혹은 간호나 증재와 관련된 논문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은 SCOPUS, PubMed, Web of Knowledge, 그리고 한국학술정보원(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의 학술논문 데이터 베이스에서 200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발행된 자료를 MeSH 용어인 정신증(Psychosis)을 중심으로 주요어가 early psychosis, first episode psychosis, 혹은 youth mental health인 문헌을 돌봄(Care or Caring), 증재(Intervention), 관리

(Management), 혹은 치료(Treatment)와 and로 병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모두 370개였으나 논문의 초록과 결과에서 돌봄 관련 요인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조기 정신증과 관련이 없는 논문 249개와 연구결과가 중복된 자료 97개, Full text를 확보할 수 없는 5개의 논문을 제외하고 19개의 학술논문과 웹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 추출 및 범주 명명

본 연구에서는 조기 정신증을 다룬 여러 선행문헌으로부터 돌봄 혹은 간호나 증재를 위한 핵심 개념들을 종합하기 위해 Wallace[29]의 종합적 메타분석을 이용하였다. 일차 분석들은 개별 연구에 나타난 조기 정신증 돌봄 요인을 나열하고 속성을 제시하는 표를 사용하였고, 이차 분석들은 이들 요인의 속성이 유사한 것끼리 모으고 범주명을 제시하는 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Table 1). 선행문헌으로부터 조기 정신증의 돌봄 요인을 추출할 때 용어 수준을 고려하였는데 예를 들면 치료이행(Treatment adherence) 보다는 투약이행(adherence to medication)으로 돌봄의 구체적인 용어를 소분류 항목으로 선택하고 이는 다시 중분류인 치료이행(Treatment adherence)으로 통합하였다. 그 결과 19개의 대상논문으로부터 51개의 돌봄 요인(소분류)이 추출되고 속성에 따라 통합(중분류)한 후 모형 구축을 위한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조기 정신증 돌봄 요인의 범주는 먼저 조기 발견(early detection)과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 정기적 재평가를 통한 새로운 치료계획 수립, 소비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 정상적인 발달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돌봄, 환자역할 습득, 전통적 방법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통합적 접근,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인 돌봄, 발달기적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일차 관리 네트워크, 환자 돌봄자를 위한 조기증재 서비스 등이 있으며 이에 속하는 돌봄 요인은 <Table 1>과 같다.

4) 예비모형 구축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조기 정신증 돌봄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돌봄 요인에 대한 범주명을 이론적 기틀에 따라 구조화하여 예비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간호사와 환자가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중범위 이론인 Peplau의 대인관계이론(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이

Table 1. Factors for Caring Persons with Early Psychosis Extracted by Meta-analysis

Category	Medium classification	Small classification
Early detection	Assessment of an individual potential causes	Ass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Assess developmental status and risk factors
		Assess other substantially high risk for psychosis development.
	Early psychosis detection skills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Regular evaluation of the current psychosocial status
Strategies to reduce DUP	Treatment adherence	Assess prodromal soft symptoms or first-episode psychosis
		Community education
		Awareness campaigns to reduce stigma
		Gaining coping skill as a patient
A new treatment plan by regular evaluation	Considering uniqueness of care consumption	Initiation of antipsychotic medication
		Individual personality traits
	Continuity of care between inpatient and outpatient clinic	Individual coping strategies
		General psychopathology symptoms
Early intervention to promote healthy living	Engagement in treatment to improve physical health	An inpatient & outpatient case management
		Maintenance of healthy body weight
		Encouraging smoking cessation
	Engagement in treatment including social care	Encouraging physical activity
Encouraging good nutrition		
Early engagement in a specialized program	Care formed by consumer's uniqueness	Increase the chances of milder deficits and superior functioning
		Development of possible social activity
	Continuity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young people	Expand chances of being employed
		Age-appropriate care that extends from early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liciting consumer's help seeking behavior at an earlier illness stage	Being aware of their developmental needs
		Mental health services for the transition and the abrupt cultural shift from a child-centred 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adult care model
Early coping-based interventions.	Improving the health of young people	Recognize symptoms of psychosis
		Express the experiences concerns about stigma
		A lack of expectation of support and a lack of help-seeking
		Awareness of information campaigns
Integration of innovative methods	Online support services as an e- health	Reduce psychotic symptoms
		Self-initiated coping strategies
		Maximizing the chances of healthy and productive lives
Mental health network for youth primary care	Enhanced primary care	Traditional face to face management for using new technology
		Combining online services
	Networked with mental health services	Remind appointment & medication
		Delivering interventions
Early intervention services for health care provider for young persons	Services with the family of the young person	Tracking mental health status
		Development of self-management strategies
		Connecting with general practitioners co-located
		Early detection of first-episode psychosis
A transformational reform of mental health care	The modern stigma free cultures of care designed and	Connecting with mental health workers
		Providing drug and alcohol services
	Mental healthcare system operated with young people	Referring to educational and vocational specialists
		Increasing the employment rates for patient.
Services with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of the young person	The modern stigma free cultures of care designed and	Supporting and empowering carers
		Strong relationships between service team members and service users
		Advocacy involving young people' families
		Promotion of adapted family support
A transformational reform of mental health care	The modern stigma free cultures of care designed and	Address the mental health needs of young people and their families
		Regular multidisciplinary review of care plan
	Mental healthcare system operated with young people	Stigma-free cultures of care
		Continuity of care for their mental health problems
A transformational reform of mental health care	Mental healthcare system operated with young people	Unique cultural needs of our young people
		Create youth friendly mental health teams for young people
A transformational reform of mental health care	Mental healthcare system operated with young people	Encourage youth participation at all lev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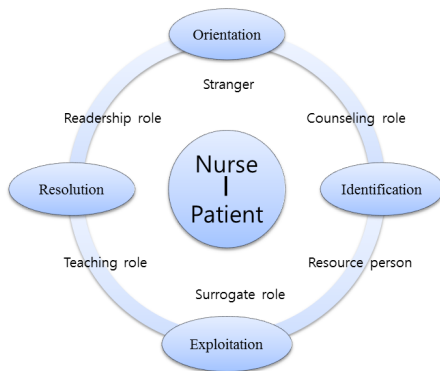


Fig. 1. A primary model for caring persons with early psychosis

대[5,6]. 이 이론은 인간을 적응과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간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간호를 치료적 대인관계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Peplau는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형성 단계를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하는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단계, 치료적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정하는 확인(Identification) 단계, 확인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간호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와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활용(Exploitation) 단계, 마지막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간호사와의 치료적 관계의 종결을 위해 대상자의 의존성을 줄여주고 대신 지역사회 자원 연결, 문제예방 교육, 사회적 지지 강화를 실시하는 해결(Resolution)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동안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이방인(Stranger), 자원인(Resource person), 교육자(Teaching role), 상담자(Counseling role), 지도자(Leadership role), 대리인(Surrogate role)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하였다[7]. 이에 본 연구자는 Peplau의 이론을 토대로 Figure 1과 같이 초기 정신증 돌봄의 예비모형을 구축하고, 문헌에서 추출된 초기 정신증 돌봄 요인은 Table 1과 같이 소분류와 중분류로 나누었다. 이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은 관련 분야 전공 교수 12명과 정신보건사업 실무자 10명으로 구성된 22명의 온라인 전문가 패널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소분류가 초기 정신증 돌봄 요인으로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개념별로 ‘매우 타당하다’(5점)부터 ‘전혀 타당하지 않다’(1점)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소분류의 51개 내용이 모두 내용타당도 지수(CVI: Content Validity Index)가 0.80 이상으로 나타

나 탈락된 내용은 없었다[30]. 또한 모형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시한 초기 정신증 돌봄 요인 외에 추가할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결과 수집된 5개요인 모두 소분류의 내용과 의미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된 내용은 없었다. 다음으로 중분류에 대한 타당성을 동일한 전문가 패널을 통해 검증한 결과에서도 모두 내용타당도 지수가 0.80이상으로 탈락된 내용은 없었으며 Table 1에 중분류로 제시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GIRB-G14-X-0017)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초기 정신증 환자의 돌봄 관련 요인

본 연구결과 초기 정신증 돌봄 관련 문헌으로 부터 51개의 돌봄 요인이 추출되고 속성에 따라 21개의 중분류로 묶은 후 이를 다시 8개의 범주로 명명하였다. 이들 범주명은 초기 발견(Early detection), 정기적 재평가를 통한 새로운 치료계획(A new treatment plan by regular evaluation),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기중재(Early intervention to promote healthy living), 소비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개입(Early engagement in a specialized programme),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통합적 접근(Integration of innovative methods), 환자 돌봄자를 위한 조기중재 서비스(Early intervention services for health care provider for young person), 정신건강 돌봄을 위한 혁신적 개선(A transformational reform of mental health care)이다. 이들 돌봄 속성과 범주명을 Peplau의 대인관계이론(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따라 구조화하여 예비모형을 개발하고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모형이 도출되었다.

3.2 초기 정신증 환자 돌봄의 이론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과 선행연구결과와 분석을 통해 초기 정신증 환자 돌봄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동일한 22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이론적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조기 정신증 환자 돌봄의 이론적 모형은 먼저 이론적 기틀인 Peplau의 대인관계이론에 따라 일차정신건강 간호에 있어서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로 이방인(Stranger), 자원인(Resource person), 교육자(Teaching role), 상담자(Counseling role), 지도자(Leadership role), 대리인(Surrogate role)의 역할을 제시하였다(Figure 2). 이러한 간호사의 역할은 조기회복을 위한 돌봄 단계인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단계, 확인(Identification) 단계, 활용(Exploitation) 단계, 그리고 해결(Resolution) 단계에 따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정신증 환자의 돌봄을 위한 단계는 조기발견, 사정, 조기중재와 근거중심돌봄, 돌봄의 지속 및 서비스 통합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조기회복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최적의 결과이다. 돌봄 단계별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돌봄 요인들은 모형에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단계에 간호사는 이방인 역할을 시작으로 다양한 돌봄 역할을 수행하며 잠재적 요인과 전구증상에 대한 조기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정단계에 간호사는 상담자와 자원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역할을 수행하며 유전적 및 환

경적 위험, 발달요인, 노출된 위험 요인 등을 사정하고 미미한 양성증상이 나 음성증상 그리고 행동과 사고의 문제, 기타 일반적인 증후군인 수면이나 감정의 변화,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등을 사정해야 한다. 활용단계에 간호사는 교육자와 대리인 역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돌봄 역할에서 규칙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초기에 건강한 삶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조기중재와 근거 기반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고유성을 수용하고 돌봄의 유지, 그리고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달을 위한 돌봄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해결단계에 간호사는 지도자 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치료계획에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전문가의 요구를 반영하고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며 혁신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등 돌봄의 지속과 통합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이 단계에는 대상자 중심의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달기적 요구에 맞게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한 온라인 지지체계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하고 가족과 관련 전문가를 위한 간호사의 중재 역할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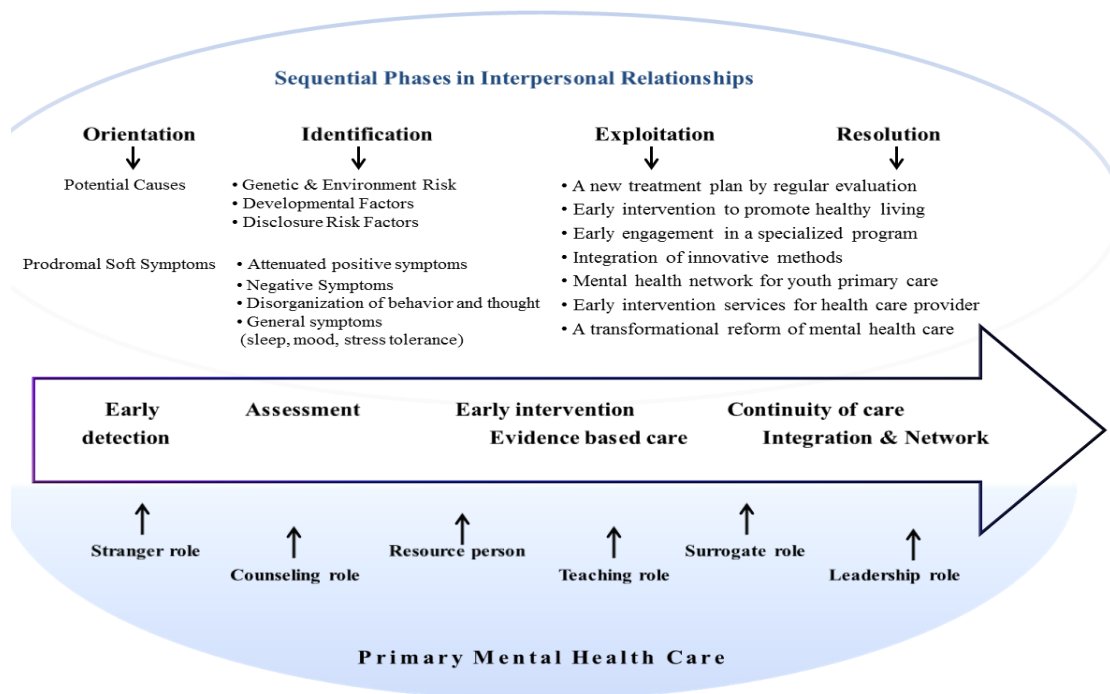


Fig. 2. A theoretical model for caring persons with early psychosis

4. 논의

본 연구는 선진국의 앞선 지식과 이론적 기초 및 학문적 경험을 토대로 한국문화에 맞게 조기 정신증 돌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한 것으로 이는 관련문헌과 선행연구결과의 분석을 통해 돌봄의 속성들을 조기회복의 맥락에 따라 제시하고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들을 제시한 이론적 모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지행동치료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조기 정신증의 개념이 정립되고 환자 선별과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 그러나 간호학적 접근은 아직 미진하여 정신보건간호 측면에서 조기 정신증 환자를 위한 관심은 절실하다. 왜냐하면 정신병은 일단 발병이 되면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14]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가 발병 단계 이전의 조기 정신증 상태의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들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조기 정신증 환자에게 있어서 첫 삽화 정신증의 조기발견은 사회적 기능을 유지 및 발달시켜 발달 지연과 왜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기본 중재 전략이다[14,24]. 또한 초기 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제 10년간의 추적 연구결과 조기발견 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 받았던 대상자의 회복률(30.7%)은 치료를 중단한 대상자(15.1%)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일상생활능력과 직업의 유지도 잘되는 등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14,21]. 여기서 전문적 돌봄이란 치료받지 않는 기간(DUP)을 최소화[8,17]하고 항정신병약물 투약 등의 화학적 치료[8]나 증상관리[13]와 신체건강관리[12,22]와 같은 임상학적 돌봄, 그리고 발달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제공[18,21,23,24], 낙인감 줄이기[21] 등의 포괄적인 전인적 돌봄의 제공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나타난 조기 정신증 돌봄 모형은 정신보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조기발견, 사정, 그리고 조기중재와 돌봄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본 연구결과 도출된 이론적 모형에서 돌봄의 구체적인 역할로 활용단계에는 규칙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에 건강한 삶 증진을 돕는 조기중재와 근거 기반 돌봄을 위해 교육자와 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해결

단계에는 치료계획에 대상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변화 및 통합시켜나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돌봄의 지속과 통합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근거로 조기 정신증 환자의 돌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정신보건간호사가 기존의 기관중심의 수동적 치료모델에서 지역사회에 속한 개인중심의 적극적인 치료접근을 유도하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지역사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새로운 조기 정신증 환자의 관리 방안으로 이들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예후를 좋게 하는 효과적인 중재에 유용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조기 정신증 환자와 가족, 정신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조기 정신증 환자 돌봄 모형을 검증하고, 환자발견부터 추후관리까지의 구체적인 임상 연구들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돌봄 모형에 반영하여 조기 정신증 중재 매뉴얼을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

5. 결론

본 연구는 조기 정신증 돌봄 모형 개발(A Structural Model for Caring Persons with Early Psychosis)을 위해 시도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조기 정신증 돌봄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선진국의 앞선 지식과 이론적 기초 및 학문적 경험을 토대로 기초모형을 개발하고 한국문화에 맞게 응용한 것으로 관련문헌과 선행연구결과의 분석을 통해 돌봄의 요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고 22명의 전문가 집단을 모집하여 온라인 토론과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조기 정신증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이론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사회 접근을 통해 조기 정신증 환자의 치료받지 않는 기간을 줄이고 개인의 발달기와 환경에 적합한 간호중재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돌봄 모형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References

- [1] M. J. Cho, S. M. Chang, B. J. Hahm, I. W. Chung, A. Bae, Y. M. Lee, et al.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Major Mental Disorders among Korean Adults : A 2006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48, no. 3, pp. 143-152, 2009.
- [2] S. K. An. "Prevention of early psychosis, and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psycho-social therapy", *Mental Health Policy Forum*, vol. 2, no. 1, pp. 206-222, 2008.
- [3] H. K. Yoo, K. Kim. "Normal Development and Common Psychiatric Illnesses i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47, no. 5, pp. 415-429, 2008.
- [4] A. Mortimer, T. Brown, "Early intervention in psychosis: Another triumph of hope over experience", *Progress in Neurology and Psychiatry*, vol. May/June, pp. 10-14, 2015.
DOI: <http://dx.doi.org/10.1002/pnp.379>
- [5] H. E. Peplau, "Future directions in psychiatric nursing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7, no. 2, pp. 18-25, 1989.
- [6] H. E. Peplau,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pplication in nursing practice", *Nursing Science Quarterly*, vol. 5, no. 1, pp. 13-18, 1992.
DOI: <https://doi.org/10.1177/089431849200500106>
- [7] K. Oh. "Theory of interpersonal relations: Hildegard E. Peplau", *Journal of Nursing Query*, vol. 14, no. 2, pp. 29-48, 2005.
- [8] P. Golay, L. Alameda, P. Baumann, J. Elowe, P. Progin, A. Polari, P. Conus,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Impact of the definition of treatment onset on its predictive value over three years of treatmen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 77, pp. 15-21, 2016.
DOI: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16.02.017>
- [9] P. S. Baumann, S. Crespi, R. Marion-Veyron, A. Solida, J. Thonney, J. Favrod, et al. "Treatment and early intervention in psychosis program (TIPP-Lausanne): Implementation of an early intervention programme for psychosis in Switzerland", *Early Intervention in Psychiatry*, vol. 7, no. 3, pp. 322-328, 2013.
DOI: <http://dx.doi.org/10.1111/eip.12037>
- [10] P. Conus, S. Cotton, B. G. Schimmelmann, P. D. McGorry, M. Lambert, "The first-episode psychosis outcome study: Premorbid and baseline characteristics of an epidemiological cohort of 661 first-episode psychosis patients", *Early Intervention in Psychiatry*, vol. 1, no. 2, pp. 191-200, 2007;1(2):191-200.
DOI: <http://dx.doi.org/10.1111/j.1751-7893.2007.00026.x>
- [11] A. N. Scholte-Stalenhoef, S. la Bastide-van Gemert, G. van de Willige, R. Dost-Otter, E. Visser, E. J. Liemburg, et al. "Personality and coping in first episode psychosis linked to mental health care use", *Psychiatric Research*, vol. 238, pp. 218-224, 2016.
DOI: <http://dx.doi.org/10.1016/j.psychres.2016.02.03>
- [12] A. R. Yung, "Youth services: the need to integrate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and social car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51, no. 3, pp. 327-329, 2016.
DOI: <http://dx.doi.org/10.1007/s00127-015-1195-6>
- [13] N. Bay, J. Bjørnstad, J. O. Johannessen, T. K. Larsen, I. Joa, "Obstacles to care in first-episode psychosis patients with a long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Early Intervention in Psychiatry*, vol. 10, no. 1, pp. 71-76, 2016.
DOI: <http://dx.doi.org/10.1111/eip.12152>
- [14] W. T. V. Hegelstad, T. K. Larsen, B. Auestad, J. Evensen, U. Haahr, I. Joa, et al. "Long-term follow-up of the TIPS early detection in psychosis study: Effects on 10-year outc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69, no. 4, pp. 374-380, 2012.
DOI: <http://dx.doi.org/10.1176/appi.ajp.2011.11030459>
- [15] J. O. Johannessen, T. H. McGlashan, T. K. Larsen, M. Horneland, I. Joa, S. Mardal, et al. "Early detection strategies for untreated first-episode psychosis", *Schizophrenia Research*, vol. 15, no. 1, pp. 39-46, 2001.
DOI: [http://dx.doi.org/10.1016/S0920-9964\(01\)00237-7](http://dx.doi.org/10.1016/S0920-9964(01)00237-7)
- [16] M. Birchwood, C. Connor, H. Lester, P. Patterson, N. Freemantle, M. Marshall, et al. "Reducing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Care pathways to early intervention in psychosis servic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203, pp. 58-64, 2013.
DOI: <http://dx.doi.org/10.1192/bjp.bp.112.125500>
- [17] M. Birchwood, S. P. Singh, "Mental health services for young people: matching the service to the need",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202, no. s54, pp. s1-s2, 2013.
DOI: <http://dx.doi.org/10.1192/bjp.bp.112.119149>
- [18] S. Singh, H. L. Fisher, "Early intervention services", *Psychiatry*, vol. 6, no. 8, pp. 333-338, 2007.
DOI: <http://dx.doi.org/10.1016/j.mppsy.2007.05.003>
- [19] M. Bak, I. Myin-Germeys, M. Hanssen, R. Bijl, W. Vollebergh, P. Delespaul, et al. "When does experience of psychosis result in a need for care?", *Schizophrenia Bulletin*, vol. 29, no. 2, pp. 349-358, 2003.
- [20] S. W. Kwon, M. S. Shin, S. C. Cho, S. W. Shin, "A survey of the psychosis among school violence victim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11, no. 1, pp. 124-143, 2000.
- [21] P. McGorry, T. Bates, M. Birchwood, "Designing youth mental health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Examples from Australia, Ireland and the UK",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202, no. s54, pp. s30-s35, 2013.
DOI: <http://dx.doi.org/10.1192/bjp.bp.112.119214>
- [22] R. Carney, J. Cotter, T. Bradshaw, J. Firth, A. R. Yung,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in young people at ultra-high risk for psychos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chizophrenia Research*, vol. 170, no. 2-3, pp. 290-300, 2015.
DOI: <http://dx.doi.org/10.1016/j.schres.2016.01.010>
- [23] D. J. Rickwood, N. R. Telford, A. G. Parker, C. J. Tanti, P. D. McGorry, "Headspace - Australia's innovation in youth mental health: who are the clients and why are they presenting",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vol. 200, no. 8, pp. 1-4, 2014. DOI : <http://dx.doi.org/10.5694/mja14.00276>
- [24] A. Malla, S. Iyer, P. McGorry, M. Cannon, H.

- Coughlan, S. Singh, et al. "From early intervention in psychosis to youth mental health reform: a review of the evolution and transform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young peopl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51, no. 3, pp. 319-326, 2015.
DOI: <http://dx.doi.org/10.1007/s00127-015-1165-4>
- [25] A. Mortimer, T. Brown, "Early intervention in psychosis: Another triumph of hope over experience", *Progress in Neurology and Psychiatry*, vol. 19, no. 3, pp. 10-14, 2015.
DOI: <http://dx.doi.org/10.1002/pnp.379>
- [26] A. Lavis, H. Lester, L. Everard, N. Freemantle, T. Amos, D. Fowler, et al. "Layers of listening: qualit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early intervention services for first-episode psychosis on carers' experience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207, pp. 135-142, 2015.
DOI: <http://dx.doi.org/10.1192/bjp.bp.114.146415>
- [27] S. Lal, J. Dell'Elce, N. Tucci, R. Fuhrer, R. Tamblyn, A. Malla, "Preferences of young adults with first-episode psychosis for receiving specialized mental health services using technology: a survey study", *JMIR Mental Health*, vol. 2, no. 2, pp. e18, 2015.
DOI: <http://dx.doi.org/10.2196/mental.4400>
- [28] G. W. Noblit, R. D. Hare,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pp. 3-88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CA, 1988.
DOI: <https://doi.org/10.4135/9781412985000>
- [29] W. L. Wallace, (1992). "Metatheory, conceptual standardization, and the future of sociology", In G. Ritzer (Ed.), *Metatheorizing*, pp. 53-68, SAGE Publication: Newbury Park, CA, 1992.
- [30] C. F. Waltz, B. R. Bausell, "Design, statistics and computer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pp. 39-116, F.A. Davis Co.; Philadelphia, PA, 1981.

성 경 미(Kyung Mi Sung)

[정회원]



- 1992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04년 1월 ~ 2005년 12월 :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Nursing, Post-Doc. Fellow
- 2008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정신건강, 정신분열병, 자녀양육스트레스